

---

# 2022년 광복회 국외항일 운동 사적지 탐방 결과 보고서

---



**광명시의회**  
GwangMyeong City Council

# 2022. 광복회 국외항일 운동 사적지 탐방 결과 보고

## I. 방문개요

□ 목 적 : 독립유공자가 조국을 위해 항일 투쟁하였던 발자취를 새겨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선조의 뜻을 새기며 자부심과 애국정신 고취

□ 방문일정 및 지역

○ 국 가 : 몽 골

· 기본정보

- 국 명 : 몽골리아 Mongolia
- 인 구 : 337만 8,078명 / 세계 134위 (2022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 면 적 : 1억 5,641만 1,600ha / 세계 18위 (2019 국토교통부, FAO 기준)
- GDP : 150억 9,802만 달러 / 세계 120위 (2021 한국은행, KOSIS 기준)
- 수 도 : 울란바토르                      - 종 교 : 라마교 53%, 이슬람교 3%

○ 참 가 자 : 오희령 의원, 이재한 의원, 김재석 주무관

○ 일 정 : 2022. 9. 5.(월) ~ 9. 8.(목) <3박 4일>

○ 주요 방문일정

일 자	지 역	세부일정	비고
9. 5. (월)	인 천 울란바토르	인천 → 울란바토르 테를지 국립공원	
9. 6. (화)	울란바토르	거북바위, 아리야발사원 전통유목민의 집	
9. 7. (수)	울란바토르	징기스칸 광장, 국립역사박물관 이태준 기념공원, 자이승 승전탑 등	
9. 8. (목)	울란바토르 인 천	울란바토르 → 인천 광명시청 복귀	

## II. 방문내용

### □ 국가 몽골

#### 〈몽골 이해〉

- 몽골은 평균 고도가 해발 1,585m에 이르는 고지대 국가이며 알타이 산맥이 있다. 북쪽 국경은 러시아와, 남쪽 국경은 중국과 접하고 있고. 해양에서 떨어져 동아시아 내륙 안에 위치하여 추운 겨울과 짧고 무더운 여름을 보이는 대륙성 기후이다.
- 초원, 준사막,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삼림으로 이루어진 북서쪽의 높은 산맥은 건조하고 호수의 분지들이 있고 국토의 80%가 목초지로 이루어져 있어 가축을 방목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삼림과 황무지 사막이 반반이다.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농경이 가능하다.
- 총인구가 200만 명을 약간 넘는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구밀도를 가진 나라이며 조상들은 BC 3세기부터 1세기까지 중앙 아시아에 살았던 훈족이었다. 단일한 몽골 봉건국가는 13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유목 종족들이 모여 형성되었다.
- 13세기에 국가의 지도자, 칭기즈 칸과 그의 후계자들은 중국 및 러시아, 중앙아시아 대부분을 포함하는 거대 제국을 통치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몽골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몽골은 1691~1921년 처음에는 중국, 그 다음에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으나 주로 중국인들의 지배를 받았다.
- 현대 몽골의 민족적 영웅인 담디니 쉰흐바타르는 1917년 러시아의 10월혁명에서 큰 영향을 받았고 쉰흐바타르의 군대는 1921년 7월 11일에 권력을 획득했다. 이 날은 몽골의 건국일로 기념되고 있다.
- 몽골의 문화생활은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과 새로 나타나고 있는 근대적 요소가 섞여 있다. 몽골의 전통축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해마다 건국기념일인 7월 11일에 시작되는 나담 축제이다. 이 축제에서는 남자들을 위한 씨름·활쏘기·경마 등 3가지 경기를 벌인다.

## 〈방문내용〉

### □ 울란바토르 수도

- 몽골은 아시아 중앙내륙에 위치한 국가로, 13세기 초 칭기즈칸이 역사상 최대의 몽골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몽골"(Монгол)은 "용감한"이라는 뜻을 가진 부족 이름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민족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 몽골제국은 동서 여러국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역사가 매우 길다.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수도로 '붉은영웅'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1639년에 건립되었다. 해발고도 1,300m의 초원성 고원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한반도의 7.4배에 달한다. 현재 몽골 총 인구는 약 300만으로 이 중 약 150만명이 울란바토르에 거주하고 있다.

### □ 테렐지 국립공원

-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북동쪽으로 약 60km 지점에 있는 국립공원으로 199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공식 명칭은 고르키-테렐지국립공원 (Gorkhi-Terelj National Park)으로 툴강(Tuul.R)이 관통하고 있으며, 계곡, 기암 괴석과 초원 등 경관이 아름다워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넓게 펼쳐진 초원에 유목민의 이동식 가옥인 게르가 흩어져 있고 말을 돌보는 목동들을 볼 수 있다.

### □ 아리아발 사원

- 라마불교의 사원으로 테렐지 국립공원의 북쪽, 깊은 산속 중턱에 있다. 사원을 오르는 길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경전과, 후르트(원통 모양의 불교 법구)가 있다. 후르트를 돌려 천장에 나오는 숫자로 자신의 운세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위로 더 오르다 보면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 걷는 다리"를 건너고 108계단을 오르다 보면 사원에 도착하게 된다.



## □ 거북바위

- 테렐지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유명한 바위인 거북바위(Turtle Rock)에 올라서면 주변의 뛰어난 경치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 □ 전통유목민의 집, 징기스칸 광장

- 나무로 만든 뼈대에 가축의 털과 가죽을 씌운 천막집인 게르는 가옥 구조가 단순하여 쉽게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어 유목민의 생활에 적합하다. 드넓은 초원 지대에서 가축을 키우며 떠돌아 다니는 몽골인들의 생활 모습을 직접 체험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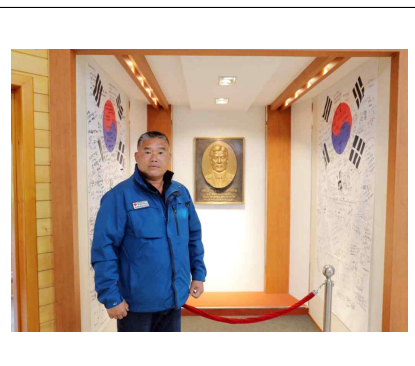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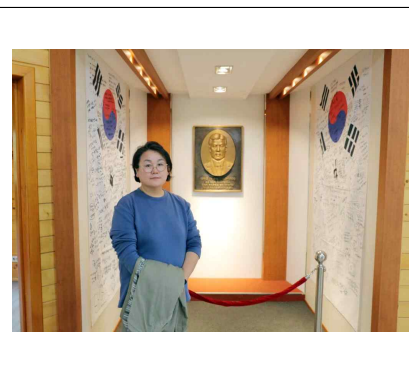
## □ 국립역사박물관

- 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몽골 역사의 흐름을 시대별, 테마별로 전시해 놓았다.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총 10개의 전시실로 나뉘어 있다. 약 5만여 점이 넘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1년 혁명박물관으로 개관하였으며
- 1992년 국립 자연사 박물관 역사관을 이전하여 몽골 국립 역사박물관으로 개칭한 후 지금에 이르렀다. 선사 시대에 그려진 4만 년 전 동굴 벽화로 특히 유명하다. 말 타는 그림이 그려진 이 벽화를 중심으로 고대 몽골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전통문화를 알 수 있다. 청동기 시대 석기와 무기, 토기, 장신구들을 함께 볼 수 있는데 몽골의 모자 400여 종을 전시해 놓은 것도 눈에 띈다. 전통 의복과 액세서리, 생활용품은 물론 전통 악기와 제기 등 종교 물품, 놀이 도구, 몽골의 이동식 전통가옥인 게르 등 다양한 종류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 모형, 인형, 사진, 그림이나 각종 자료가 충실한 이해를 돕는다. 몽골 국립 역사 박물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칭기즈칸 유물이다. 몽골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칭기즈칸의 자료들은 3층 제4전시실 몽골 제국 시대 구역에서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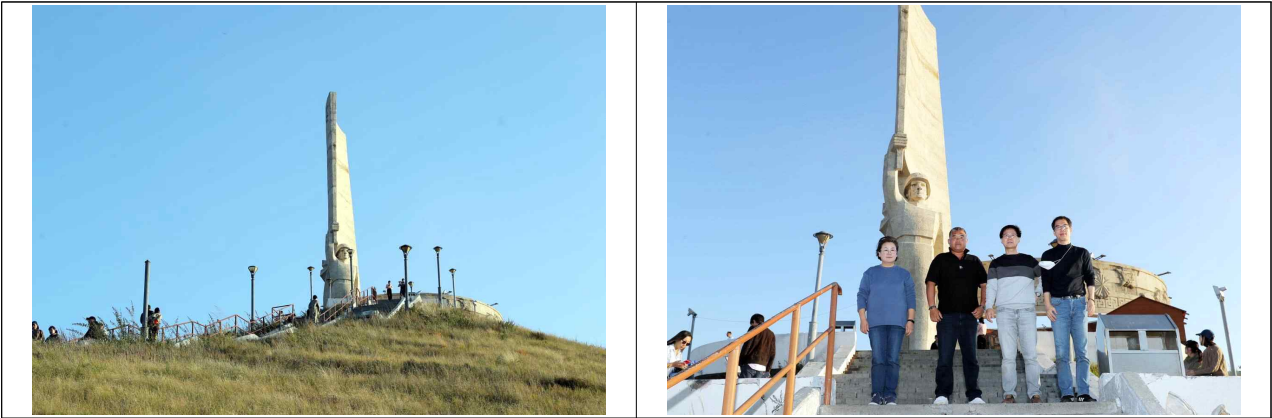
## □ 이태준 기념공원

- 이태준(李泰俊, 1883년 11월 21일 ~ 1921년 2월)은 대한민국의 의료인 출신 독립운동가이다. 자는 원일(元一). 호는 대암(大岩). 몽골의 슈바이처라고도 불린다.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아버지 이질(李贊)과 어머니 박평암(朴平岩) 사이에서 출생하여, 1911년 세브란스의 학교를 졸업하여 의사가 되며 이때 안창호 선생과 친분을 쌓아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1914년 몽골에 가서 의료활동과 독립운동을 병행했다. 몽골 마지막 칸 복드 칸의 주치의였다고 하며,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동의의국(同義醫局)을 세워 의료활동을 병행했다고 한다.
- 특히, 당시 몽골인의 70%가 걸렸던 성병 치료에 탁월했다고 한다. 그리고 1919년 당시 몽골 최고 훈장이었던 '에르데니인 오치르'를 받았다고 한다. 동시에 개신교 선교 활동과 의열단에 가입하고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금 조달 등의 독립운동 중 당시 몽골의 지배자였던 '미친 남작' 운게른 슈테른베르크의 사병들에게 잡혀 피살됐다. 근현대 한몽관계 수립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칭송받으며 1990년 대한민국 건국 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 2000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 기념비를, 2001년에는 기념 공원이 몽골 정부와 연세대의료원, 연세대 총동문회의 후원으로 세워졌다.



## □ 자이승 승전탑

- 몽골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1971년에 세워졌다. 자이승 승전 기념탑은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울란바토르 시내의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도 하고 있다.



## III. 방문소감

-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소멸된다.'라는 말이 있다. 이번 사적지 탐방은 몽골이란 낯선 오지에서 홀로 외롭게 독립운동을 하신 이태준 독립지사님의 삶을 돌아보는 여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의 숭고한 조국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 탐방하며 내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이태준 열사와 같은 분을 우리 후손들이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역사는 소멸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이끌러 나가는 원동력 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
- 함께 여정을 했던 광복회원들과 함께 이태준 지사의 묘소 앞에서 부른 애국가는 가슴 뭉클한 감동이었다.
-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친 선열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고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예우는 지극히 당연하며 후손들이 귀한 정신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 사적지 탐방길을 함께 하며 일제치하 속에서도 목숨까지 받치며 나라를 지키고 전쟁속 가난한 보릿고개를 넘어 짧은 시간속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우뚝 세워 세계적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력과  
발전한 나라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